

2-39. 파 포장에서 파굴파리(*Liriomyza chinensis*) 발생 및 피해 조사

최인후*, 김정화¹, 김길하¹

호남농업시험장 목포시험장, ¹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

파굴파리 피해정도는 2002년 8월~9월에 파주산단지 6지역에서 조사하였고, 파 포장에서의 연중 발생 및 피해 양상은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호남농업시험장 목포시험장에서 살충제를 살포하지 않은 시험포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성충밀도, 성충식혼수, 유충에 의한 피해엽을 등을 조사하였다. 또한 효율적인 발생예찰을 위한 점착판 트랩의 색상별 성충 유인정도를 조사하였다.

조사된 파 주산단지 모두에서 파굴파리 피해를 확인하였고 서울 구리, 충북 청주, 전북 고창, 전남 진도, 경남 부산에서의 피해엽을 23.4~49.5%로 피해가 심하였고 강원 평창은 0.8%로 낮았다.

파굴파리 월동태인 번데기는 표토에서 약 10 cm 이내에 80%이상 분포되었고 우화기간은 5월상순부터 6월하순이었으며 초기 우화된 성충은 파 묘상과 본답의 월동된 잔존 파로 이동하여 흡즙 및 산란하였다. 전남 무안에서 황색 점착판 트랩과 포충망으로 조사된 연중 파굴파리 성충의 다발생시기는 8월중순이었으며 파 외에 나타난 성충의 흡즙 수는 8월하순에 가장 많았다. 유충에 의한 파 피해엽율은 5월중순의 파 이식 후부터 완만히 증가하다가 8월상순에 62.2%로 가장 높았으나 피해엽율 10% 이상 유지되는 시기는 6월하순~9월중순사이로 이 기간이 방제에 유의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.

성충밀도 조사를 위한 점착판 트랩의 색상별 유인량은 황색> 적색> 녹색> 백색> 청색 순으로 많았으나 파굴파리 성충만 선별 유인 가능한 트랩은 총 유인된 충수 대비 파굴파리 점유율이 황색 40%, 녹색 49.4%, 적색 80%로 적색 점착판 트랩에서 점유도가 높아 선별 트랩으로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.